

## 존재의 순간들: 버지니아 울프의 『출항』

진 명 희

### I.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처녀작 『출항』(*The Voyage Out*)은 그녀의 자서전적 요소가 많이 담긴 작품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을 깎아내며 완성한 작품이다. 『출항』에는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난 여성으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작가로서의 필명도 얻지 못한 불안한 자아정체성에 대해 괴로워하던 시기의 울프의 모습이 결혼을 계기로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24살의 젊은 여성 레이첼 빈레이스(Rachal Vinrace)에게 다분히 투영되어 있다. 『출항』은 울프가 부친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의 죽음 후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은 1904년부터 출판된 1915년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고쳐 쓴 작품으로, 남편인 레너드(Leonard) 울프의 회고에 따르면 적어도 5, 6회, 조카인 켄틴 벨(Quentin Bell)에 따르면 7회 정도 다시 쓴 작품이다(Raitt 33, Bell 126). 뉴욕 공공도서관의 버그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는 『출항』의 여러 타자본 들과 필사본 등을 면밀하게 연구한 울프 연구가 루이즈 드살보(Louise DeSalvo)에 의하면 줄잡아도 7회, 많게는 11, 12회 정도 고쳐 쓴 작품이며, 여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개작할 때마다 울프 자신도 정신적 쇠약을 겪고 요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

(DeSalvo, *First Voyage* 1-9).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쳐 쓰며 십 수 년을 한 작품에 매달린 말 그대로 작가로서 울프 자신의 출항과 여주인공의 자아 탐색을 위한 내면여행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교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울프는 T. S. 엘리엇이 편집한 『뉴 크라이테리언』(*New Criterion*)이라는 잡지 1926년 1월호에 「병든에 관하여」(“On Being Ill”)라는 에세이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글에서 그녀는 기존의 사랑과 질투 등을 주제로 한 가정/연애소설보다 병든 육체의 고통과 반응을 주제로 한 소설이 더욱 흥미로우며 가치 있겠지만, 이런 소설은 내면의 심리묘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플롯이 없는 작품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On Being Ill”, 9-23). 울프의 그런 생각은 비록 자신의 처녀작 출간 시기와는 10년의 격차가 있지만, 『출항』의 전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울프 역시 이 작품에서 당시 유행하던 결혼소설과 여행소설의 큰 틀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에 나름의 변형을 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소설적 전통과 관습 안에 머물면서도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 새로운 소설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의 글쓰기 여정과 주인공의 영혼 속으로의 내면 여행이 병치되는 점에 이 작품의 매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전히 빅토리아 소설 전통을 따르는 작품으로 다소 폄하되고 있는 첫 장편소설 『출항』에서 울프가 진정한 정신적 경험적 고양에서 가능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경험의 순간이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존재의 순간들을 표현할 새로운 소설형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주인공 레이첼의 내면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레이첼의 바다여행은 갇힌 자아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이 여행은 기존의 빅토리아 소설 형식에 머물면서도 여기서 탈피하는 심리소설의 언어를 찾아가는 작가의 내면여행, 혹은 예술적 여행과 병치된다.

## II.

『출항』은 플롯 상으로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그리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연애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간단한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11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두 명의 고모들과 리치몬드의 집에서 편안히 살아 온 24살의 레

이첼은 해상무역업자이자 십 여척의 선주인 아버지 윌로우비(Willoughby) 빈레이스의 상선을 타고서 휴가를 떠나는 외숙모와 외삼촌인 헬렌 앰브로우즈(Helen Ambrose)와 리들리(Ridley) 앰브로우즈를 배에서 맞이한다. 그들과 함께 항해하던 중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리처드 델러웨이(Richard Dalloway)와 부인 클라리사(Clarissa)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배에 합류한다. 배가 풍랑을 만나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리처드 델러웨이는 레이첼을 붙잡고 키스를 하는데, 생애 첫 키스를 경험한 레이첼은 그날 밤 자신의 선실에서 악몽에 시달린다.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세상 경험 특히 남녀관계에 무지한 레이첼의 정신세계를 넓혀주고, 딸을 죽은 아내 대신 자신의 사회활동을 돕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만들려는 윌로우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마음에서, 헬렌은 자신의 휴가 목적지인 남미의 산타 마리나(Santa Marina)에서 레이첼을 데리고 내린다. 헬렌이 마련한 그곳 빌라에 머물던 레이첼은 시내 호텔에 머물던 일군의 영국 관광객들과 만나게 되고, 그 중 한사람인 소설가 지망생 테렌스 휴잇(Terence Hewet)과 사랑에 빠져 약혼하게 된다. 결혼을 앞둔 레이첼은 아마존 상류를 따라 올라가며 원주민들의 삶을 구경하자는 플라싱 부인(Mrs. Flushing)의 제안에 찬성해서 원주민 마을로 탐험여행에 동참했다가 열병에 걸려 두 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죽는다.

마치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의 소설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을 연상시키는 듯한 『출항』은 강을 따라 올라가는 탐험과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정체성 탐구를 큰 주제로 하면서도 빅토리아 시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의 주제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울프의 경우 이 결혼의 주제는 사회적 안정을 갈구하는 여주인공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안주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Low 131). 울프는 배경과 사건의 구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형식적 관습에 머물고 있지만 자신만의 소설 형식과 내용에 대한 추구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거듭된 고쳐 쓰기에 매달리게 한 주된 원인이다. 그런 만큼 『출항』은 세심한 정독을 요하는 작품이다.

울프는 처음에 여주인공의 이름을 레이첼이 아니라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이며 처녀의 여신이기도 한 썬시아(Cynthia)로 이름 지었다가 개작 과정에서 레이첼로 바꾸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을 썬시아에 비교할 정도로 썬시아는 결혼을 거부한 처녀이지만 동시에 사냥을 즐기는 매우 남성적이며 당당한 여성의 상징이다. 이와 반대로 레이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암양’,

나아가 ‘희생제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야곱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던 여인이다. 그녀는 야곱과 결혼 후에도 아이가 없어 자신의 몸종인 빌라(Bilhah)를 몰래 야곱의 잠자리에 들여보내 아이를 얻는 등 결혼 생활 자체도 순탄치 않았던 인물이다. 그녀는 전형적인 가부장제하의 딸로서 남편인 야곱에게 일종의 재산으로 양도되는 인물인 것이다. 올프는 자신의 여주인공을 굳이 성경의 인물인 레이첼이라 이름 지음으로써 그녀가 가부장제의 희생자이며 결혼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예속을 의미하는 것임을 암시한다(Cummins 204-06). 아버지 윌로우비가 헬렌에게 딸의 산타 마리아 여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안에 틀어박혀 피아노나 연주하며 세상에 무지한 딸의 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장차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부인을 대신해서 사교계의 파티를 주도할 안주인으로서 딸이 세련된 매너를 배웠으면 하면 이기적인 욕망에서이다(Paul 59). 헬렌은 자신의 시누이의 때 이른 죽음 역시 윌로우비의 어떤 폭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비교적 선진 지식인이면서 여성 해방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휴잇 역시 레이첼에 대한 태도가 약혼 후에는 이전과 달리 강압적이며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처드 델러웨이와 윌로우비를 비롯하여 『출항』에 나오는 남성들은 한결같이 빅토리아 소설에 나오는 가부장적 남성들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점은 작품의 시작부터 분명하다.

여섯 살과 열 살 된 아들과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런던 부두에 정박 중인 유프라지니(Euphrosyne) 호에 오르기 위해 런던의 스트랜드에서 임뱅크먼트를 따라 걸어 내려가며 훑어보는 헬렌의 묘사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일찌감치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정,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이원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구성은 빅토리아 소설관습의 잔재로서, 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뚝을 쌓아놓은 임뱅크먼트는 문명의 상징이자 질서 자체이며 남성들의 업적이다. 이곳에서는 서로 팔을 끼고 우의를 과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엉뚱한 옷차림이나 개성 있는 행동이 무시되거나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된 기행으로 여겨질 정도로 문명은 훈련과 질서, 획일화를 요구한다. 바로 이런 문명의 안전함을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가부장 제도이다. 문명과 가부장 제도는 안전과 질서를 보장해 주지만 팔을 끼고 서로 한담을 나눌 정도의 정서적인 삶은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억압적 요소를 보인다. 아이들을 떼어놓고 리들리가 굳이 아내를 여행길에 대

동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배려에서가 아니다. 그리스 서정시인 핀다로스에 대한 주석본을 편집중인 리들리는 아내의 회생을 끝없이 강요했던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을 모델로 한 인물인데, 현실에서 편안히 책을 읽고 집필에 몰두하기 위해서 리들리는 아이처럼 어머니이자 부인으로서 헬렌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카인 레이첼이 열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사실을 제일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인물이 바로 리들리이며, 그녀의 죽음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에만 매달린다. 뒤로 팔짱을 낀 채로 슬픔에 빠진 부인을 뒤따라 걸어가는 리들리를 보고 도로변의 아이들은 ‘푸른 수염’이라고 놀린다. 자신만의 성에 여성들을 가둬 놓고 살해하는 그 푸른 수염이라는 상징적 호칭으로 울프는 매우 세심하게 작품의 시작부터 불평등한 가부장제의 위협을 부표처럼 독자들의 시선에 던지고 있다. 울프는 작품의 서두에 리들리를 푸른 수염과 연결시킴으로써 여성 혐오, 폭력, 죽음과 같은 주제를 일찌감치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Wussow 101-02).

가부장제의 문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식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남성 지배를 공고히 하는 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고모들의 보호 하에 24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고전음악 피아노연주를 유일한 취미로 살아가는 레이첼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일종의 백지상태이다. 레이첼은 바흐나 베토벤 같은 고전주의 음악에 탐닉하거나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 같은 중세 로맨스 세계를 그린 몽환적인 음악을 사랑하는데,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그녀의 고립을 상징한다(Raitt 35). 그러나 그녀가 폐쇄적인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자신의 고전주의음악 안에서이다. 레이첼에게 고전주의음악, 특히 피아노음악은 가부장적 언어이전의 ‘기호체계’라기 보다는 다분히 현실말각의 성격이 짙다. 유일한 도피처이며 소통수단인 음악 안에서만 자유로움을 느끼는 레이첼은 결국 소위 말하는 “집안의 천사”로 남게 될 것이다.<sup>1)</sup> 이런 그녀가 델러웨이 부인과 같이 매력적이고 사교적인 여성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은 당혹감이며 소외감이다. 어머니의 부재를 강하게 의식하는 레이첼은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

1) “집안의 천사”(The Angel in the House)란 표현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시인 코넛트리 페트모어(Coventry Patmore)의 작품 『집안의 천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미국의 워싱턴 주 풀만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레너드 울프와 버지니아 울프의 서고 목록에 따르면 페트모어의 책 제4판(1866)을 버지니아의 어머니 줄리아 잭슨(Julia Jackson)이 소유했던 것을 울프가 물려받아 간직한 것을 알 수 있다(Steele 320).

악에 빠져든다. 델러웨이 부인과의 대면을 그린 다음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감판을 걷기 시작했을 때, 레이첼은 그녀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 밖에 있으며 어머니가 없음을 느끼게 만드는 이들 성공한 기혼 부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과 합류하는 대신 황급히 뒤돌아서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광 닫고 악보를 꺼냈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퍼셀 등 모두 오래된 악보로, 페이지는 누르고 조판이 손가락에 저칠게 느껴졌다.<sup>2)</sup>

레이첼이 혼자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혀 과거의 고전 음악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푸른 수염의 성벽 안에 갇혀 희생 제물이 되는 여성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푸른 수염에 비유되는 리틀리보다 더욱 가부장적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바로 리처드 델러웨이이다. 키츠나 셸리와 같은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보다 정치인으로서 여공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 자신의 업적이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는 효용과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자로 찰스 디킨즈의 『어려운 시절』(*Hard Times*)의 그랫그라인드 씨(Mr. Gradgrind)의 후예이다. “인간은 한 세트의 칸막이 부분들이 아니라 유기적인 조직체”(72)라는 점을 레이첼에게 강조하는 리처드는 문명과 남성적인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미명하에 식민주의와 전체주의적 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이런 억압적인 체제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정치적 본능이라는 것을 가진 여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하는 그는 여성 참정권을 철저히 부정한다. 이런 리처드에게 레이첼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72)뿐이다.

자신이 인생 절정기에 있다고 느끼는 아버지뻘인 40대의 리처드와 레이첼의 키스는 일종의 성적 강간을 의미한다. 울프는 이들의 키스 장면을 태풍에 크게 흔들리는 레이첼의 선실로 설정함으로써 이 성적 폭력이 레이첼의 정신에 가져올 태풍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5장에서 일찌감치 발생한 리처드의 벼락 키스가 가져온 레이첼의 정신의 동요와 상흔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그녀의 죽음은 그것의 후유증과 연결된다(Low 121, DeSalvo, *Impact* 168). 레이첼은 리처드와 키스 후에 긴 터널을 내려가다 축축한 물기가 흘러내리는 벽돌로 막힌 지하실에서 몰골사나운 조그마한 남자와 같히는 꿈을 꾸다. 얼굴에 곰보 자국

2) Virginia Woolf, *The Voyage Out*, 60-1. 앞으로 인용문 뒤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함.

이 나 있는 동물과 같은 모습의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꿈은 강압적인 성교와 이것을 피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달아나는 그녀의 심리적 퇴행, 혹은 역출산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녀가 휴잇과 약혼 후에 혼수상태에 빠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다시 변형되어 반복된다. 억압된 것들이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며 반복되는 레이첼의 악몽은 원고를 계속 고쳐 쓰며 반복 충동에 시달리는 울프의 창작 욕구와 맞물려 있다. 처음으로 남자와 키스를 경험한 레이첼이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소설의 진지한 화자는 “어쨌든 멋진 일이 일어났었다”(85)고 다소 거리감 있는 논평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레이첼 자신도 성적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혼돈에 빠져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리치몬드 의 고립된 삶으로 상징되는 갇힌 자아에서 사랑과 결혼으로 상징되는 열린 세계로의 향해에서 레이첼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의사소통과 그 의사소통에 근거한 친교에서 멀어짐을 느끼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것은 울프 자신의 난관이기도하다. 자신만의 영혼과 자아에 충실한 유아론적 세계를 근본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법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아의 경험이 공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 경험은 스스로를 배반하게 되고 공공의 언어로 매개된 자아는 이미 타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고민은 자신의 내적 경험, 흔히 에피피니로 명명되는 내면의 통찰의 순간에 집착하는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공통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유독 울프에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자신의 여성적 경험을 남성언어 문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집요한 의문 때문이다.

소통과 단절,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정, 사회와 자아 사이에서 어정쩡한 국외자의 상황에 처해있는 레이첼의 이중적인 모습은 그녀가 영국 관광객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의 유리창 너머 광경을 목격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레이첼이 휴잇과 세인트 존(St. John)을 처음 보게 되는 이 장면에서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체스를 두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유리창 밖에 서서 들여다보는데, 안에서 휴잇 역시 유리창 밖의 두 여성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다.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른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상대적이듯이 응시의 대상과 주체, 주인과 노예, 문명과 자연은 다만 상대적인 것임을 강하게 암시함으로써, 울프는 고정된 정체성의 개념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것에 근거한 식민주의자들의 인종적인 우월의식 역시 비판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비판의식은 영국의 정복전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 체스게임은 규칙을 중요시하는 문명의 상징으로 이 게임을 통해서 산타 마리아라는 남미의 휴양지에서도 영국의 문명과 사회 질서는 계속되고 있다. 레이첼이 헬렌과 더불어 호텔에 머물지 않고 빌라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녀가 틀에 박힌 문명의 외곽 지대에서 비교적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영국의 휴가 관광객들과 더불어 소풍과 강 탐험을 즐기므로서 여전히 영국의 문명이 자연을 침해하고 지배하는 영국의 제국주의의 확장에 동참한다(Paul 69-77). 레이첼과 헬렌은 영국식민주의의 일원이면서 여전히 그 변경에 머무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인다.

출항 자체와 마찬가지로 레이첼이 휴잇과 세인트 존 허스트 등과 나귀 등에 올라 산꼭대기로 소풍을 가는 것은 그녀의 자아의 확장,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헬렌과 대화중에 여자들이 어떻게 행복에 이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실토하며 “우리 사이에는 심연이 있어요”(245) 라고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철저히 신뢰하는 회의주의적인 세인트 존과 같은 인물 때문이다. 휴잇 역시 산정에 올라 절벽 가장 자리에서 저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외치는 것은 “영국에 있다면 좋겠어요”(25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이 산정에 올라 이들과 더불어 발아래 펼쳐진 바다의 넘실거리는 모습을 구경한다는 것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보다 거대한 삶의 연속성, 무한성, 초자연적인 어떤 것과의 합일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울프 작품에서 바다나 강은 자유로움과 내적자아와 시간의 계속성과 함께 초월적이며 무한한 세계의 상징이다(Paul 56). 울프가 스스로 강에 빠져들어 자살한 것은 그녀의 정신적 이상심리 이전에 어쩌면 이러한 지속적인 욕망의 투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레이첼이 절벽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은 단절이자 동시에 지속을 의미하는 절벽이 가지는 양면적인 한계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며, 울프는 바다와 육지의 한계점을 통해서 레이첼의 정신의 변화, 육지와 바다의 경계점에 머무는 그녀의 심리적 이중성을 상징한다. 『출항』에서 울프는 빅토리아 소설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풍경을 정신의 치환물,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하고 있다. 절벽이 있는 산정에 올라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레이첼은 자신의 리치몬드에서의 삶을 얘기하며 되돌아봄으로써 의식의 확장과 더불어 독립적인 고립감을 강조하는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인물이 휴잇이다.



일 년에 육칠백 파운드의 수입이 있어 소설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휴잇은 이블린(Eveline)이 말하는 대로 “무언가 여성다운 남성”(302), 즉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예술가로 울프의 대변인 격이다. 그가 쓰고자 하는 침묵,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소설 역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문법과 언어를 찾는 작가의 곤경을 대변한다. 휴잇이 쓰려고 하는 침묵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온 여성들의 침묵으로, 그 침묵 또한 남성인 휴잇의 손에 의해 쓰여 질 계획이라는 점에서 울프의 아이러니는 강한 힘을 지닌다. 진정한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몫이겠지만 울프는 그런 여성 언어의 정착 이전에 진보적인 여성 해방에 공감하는 남성작가를, 즉 여성적인 남성들과의 공존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아이러니를 통해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강요된 여성의 침묵에 대한 휴잇의 강한 분노를 통해 레이첼은 자신의 24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하기 시작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레이첼이 자신의 과거의 삶, 아버지에게 억눌린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휴잇이 침묵에 관해 소설을 쓸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밝힐수록, 레이첼은 자신이 혼자이며 휴잇 역시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물개성적인 인물로 변해 감을 느낀다. 레이첼의 감정이 고양될수록, 자신의 영혼으로 내면 여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례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점점 고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짐을 감지한다. 존재의 순간은 자아의 확장과 더불어 철저한 단절을 가져온다. 레이첼은 휴잇과 대화 중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으며 그와의 사이에 “그 누구도 침투한 적이 없는 거대한 삶의 공간”(260)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휴잇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백묵으로 그려진 원이 있으며, 그 원은 각 개인을 보호하여 침범당해서는 곤란한 안전지대이며 사적공간이다(Lyon 114, Apter 16-7). 역설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사회적 삶,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의 공간이며, 이 안에서 각자는 암흑처럼 혼자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내리는 것보다 더욱 우스운 일은 없다. 리처드의 강압적인 키스는 레이첼의 이 영혼의 공간, 혼자만의 공간을 야만스럽게 짓밟고 들어온 침략이며 도발이다. 문명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민족, 이방인에 대한 침략 또한 성적 강간의 다른 이름이다. 휴잇은 레이첼이 문 뒤로 사라지는 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통감한다. 결합의 느낌이 커질수록 분리와 고립감 역시 강화된다.

결국 그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아무렇게나 내뱉은 불필요한 말들이 원형으로 등글게 소용돌이치고는 언제나 매번 소진되어 버렸으며, 그들 둘을 아주 가깝게 끌어 당겼다가 아주 멀리 따로따로 내던져버렸다. 결국 그는 그녀가 어떻게 느끼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불만스런 상태로 남겨졌다. 얘기하고, 얘기하고, 단지 얘기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267)

영혼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내면 여행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해지겠지만, 자신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어둠의 두께 역시 두터워지는 법이다. E. M. 포스터(Forster)의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에서 마지막에 동과 서를 대표하는 두 마리의 말들이 서로 머리를 달리하며 제 길로 나아가듯이 내면 깊숙한 영혼은 철저하게 혼자이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표현하는 소설은 이제 그 문법을 달리해야 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울프의 작가로서의 난관이 『출항』에 드러나 있다.

산정으로의 소풍에 뒤이어 아마존 강 상류 원주민 마을로 약 열흘에 걸친 탐험여행을 하자는 플러싱 부인의 제안은 레이첼에게 또 다른 영혼 여행을 의미한다. 헬렌은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텐트에서 생활하며 때로는 남에게 알몸을 보이기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 탐험여행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이것은 레이첼에게 이 탐험여행이 문명의 변경으로 나아가 외장의 옷을 벗고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과 대면하는 순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레이첼은 플러싱 부부, 외숙모 헬렌, 테렌스 휴잇, 세인트 존 허스트와 함께 떠난 아마존 상류로의 여행에서 휴잇과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와 하나 되는 희열을 경험한다. 그녀는 휴잇의 뺨을 만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휴잇의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몸도, 온 세상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영혼의 비상을 통한 초월적 세계를 경험한다. 사랑은 나눔과 분리를 넘어서 영혼이 하나가 되는 영적교감이며 진정한 의미가 소통하는 순간임을 체험한다. 이 영적교감은 일종의 침묵의 언어 안에서의 의사소통으로, 레이첼과 휴잇은 자신들의 말 사이에 이어지는 이러한 침묵 안에서 평온을 느끼고 이 침묵 안에서 사소한 생각들이 쉽게 자라남을 경험한다. 레이첼이 영국에서 타고 온 배의 이름이 유프라지니이듯이, 그녀가 다다른 이 순간이 행복이라면, 기쁨이나 환희를 의미하는 유프라지니 호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녀를 이 먼 곳으로 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첼이 휴잇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는 순간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헬렌의 존재이다.

한 손이 레이첼의 어깨에 철과 같이 돌연하게 얹혀졌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친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아래 넘어졌으며, 풀잎이 그녀의 눈을 휘감기듯 스쳤고 그녀의 입과 귀를 채웠다. 흔들리는 풀줄기 사이로 그녀는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하고 볼품 없는 한 모습을 보았다. 헬렌이 앞에 있었다. 이리저리 구르며, 이번엔 단지 녹색의 숲만을, 또 이번엔 드높은 푸른 하늘을 보며,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으며 감각도 거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풀잎들이 그녀가 철뚝거리는 숨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녀는 헬렌의 부드러운 몸과 단단하고 친절한 팔들을 실감하며 행복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부풀어 올랐다 부서지는 것을 깨달았다.

(347)

탐험 여행 중 레이첼이 숲속에서 휴잇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다소 모호하게 그리고 있는 장면에서 레이첼은 절정의 순간 자신을 억누르며 갇싸고 있는 몸이 휴잇이 아니라 헬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일종의 몽환 상태에 처한 레이첼은 이 순간 감각이 마비되며 말을 잊고 있는데, 육체적 감정이 극에 달한 희열의 순간 언어와 이것에 근거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할뿐더러 무의미하다. 그런데 레이첼은 왜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변경지대에서, 문명을 떠나 숲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는 일행으로 부터 그다지 멀리 벗어나 있지는 않은 묘한 중간지대에서, 헬렌과의 성적 결합을 꿈꾸고 있을까? 이 장면은 휴잇과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독자에게 예고하며, 결혼이 적어도 여성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작가는 침묵에 의한 언어 이전의 의사소통의 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파편적인 것에 불과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레이첼이 동성애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환상의 순간은 그녀가 열병에 걸려 혼수상태에 빠져 늪으로써만 연장된다.

레이첼이 절정의 순간 헬렌과 결합하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인 헬렌을 멀리하고 휴잇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울프는 이것이 일종의 동성애적인 결합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질서와 문명의 거부로 이어진다는 것을 존 밀턴의 가면극 『코머스』(Comus, 1634)에 대한 여러 차례의 언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열병에 걸린 레이

첼은 침대에 누워서 낮에 휴잇이 낭송하던 밀턴의 가면극에서 계모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다 물에 빠져 죽어 세번 강의 요정이 되어 여성들의 수호신이 된 사브리나(Sabrina)에 대한 묘사를 기억한다.

유리처럼 반반하고 차갑고 반투명한 파도 아래,  
 얽혀 있는 백합의 꼬여 있는 줄기들 속에서  
 황갈색의 흐트러진 머리타래를 늘어뜨리고. (402)

휴잇을 통해서 매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레이첼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밖의 세상과는 철저히 소통할 수 없는 세계에서 밀턴의 사브리나 묘사를 기억하고 읊조리는 것은 의미가 크다. 울프는 「병든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서 병석에 누워 있으면,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읽을 수 없던 작품이 새로운 흥미를 주며 기존의 시를 단어의 순서에 상관없이 재구성하여 낭송하는 재미가 각별하다고 적고 있는데(18-9), 레이첼 역시 형용사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밀턴의 언어를, 즉 남성 언어를 자기 식으로 전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코머스』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귀족처녀(Lady)가 그 숲의 악한 마법사의 주술에 걸려 위험에 처했을 때 세번 강의 요정인 사브리나에 의해서 구원되는 이야기를 가면극으로 그린 것인데, 울프는 휴잇이 읽고 있는 작품을 키츠의 “나이팅게일 송시”(“Ode to a Nightingale”, 1819)와 밀턴의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밀턴을 택했다(DeSalvo, *First Voyage* 141). 밀턴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남성의 성적 폭력에 맞서는 여성적 유대감인데(Low 132-3), 울프는 레이첼이 병상에서 밀턴을 자기 마음대로 다시 쓰는 방식으로 여성적 유대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레이첼의 아버지 윌로우비의 잔인함으로 어머니가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고 헬렌이 생각하듯이 울프는 레이첼의 죽음이 가부장적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암시한다. 레이첼의 병이 위독함을 알고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나선 리들리 역시 불안하여 서성거리며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의 시 “뉴 포리스트 발라드”(“A New Forest Ballad”, 1847)의 후렴 부분을 계속 읊조린다. 이 발라드는 사랑하는 여인의 숲에서 사냥을 하던 남자가 여인의 아버지인 산지기와 싸우다 둘 다 죽자 이들을 따라 죽은 여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내용 역시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죽게 된 여성의 희생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밀턴의 시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남성 폭력과 여성의 희생이라는 주제를 반복함으로써 레이첼의 죽음이

일종의 희생임을 거듭 암시한다(DeSalvo, *First Voyage* 149-53).

레이첼이 혼수상태에서 목격하는 환상은 앞서 5장에서 리처드 델러웨이와 키스 후에 꾸었던 악몽의 연장이다. 그녀는 성적 폭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은 리처드와 강제적인 육체접촉이 그녀에게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휴잇과의 관계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첼은 혼수상태에서 템스 강 밑에 있는, 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젖은 터널을 걸어가며 왜소한 체구의 늙은 여자들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한 여인이 칼로 한 남자의 머리를 베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성경의 경외서 『주디스』(*The Book of Judith*)에서 주디스가 홀로 퍼네스(Holofernes) 장군의 목을 칼로 쳐서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레이첼의 환상은 앞서 5장에서 그녀가 지하 동굴에서 마주 앉은, 동물처럼 생긴 남자의 반복이며, 늙은 여인이 칼로 이 남자의 목을 베는 것은 자신의 성적 폭력에 대한 대리 복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울프는 5장에서 있었던 성적폭력을 레이첼의 악몽과 환상 속에서 반복시킴으로써 앞선 성적폭력이 그녀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레이첼이 열병에 걸려 철저히 세계와 고립되고 정신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의 지배 아래 완전히 복종되어 버리듯이, 휴잇 역시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예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그는 레이첼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425). 그가 자신일 뿐 아니라 레이첼이 된 것 같다고 느끼며 영혼까지 평화로워지는 순간은 단지 죽음이 가져다주는 순간의 행복일 뿐이다. 영혼이 밖을 향해 문을 여는 순간은 존재의 한 순간일 뿐이며 나머지는 다시 어둠속의 늑늑한 터널의 연속이다.

### III.

울프는 젊은 아가씨가 남자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 전형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성장/결혼소설의 틀을 빌려 『출항』을 창작하면서도 자신의 여주인공은 결혼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소설적 형식을 내부로부터 파괴한다. 처음부터 그녀는 첫 출항하는 소설가로서 자신만의 영혼의 경험, 진정한 존재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언어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한

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치환해서 제기한다. 가부장제의 폭압적 위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경험과 언어가 침묵 이외의 언어로 소통 가능할까 하는 문제의식이 그녀의 처녀작 『출항』의 출간을 계속 지연시켰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상 그녀의 전 작품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레이첼이 죽은 후 폭풍우 속 번개가 치는 짧은 어둠의 순간 함께 모였던 호텔 사람들이 다시 잠자리로 흩어지듯 진정한 존재의 순간은 폭풍의 반사광처럼 순간이며, 이 순간을 표현할 언어를 찾는 울프의 노력은 아직은 지난한 것이다. 성차와 지배와 복종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사회와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자신만의 경험세계가 가능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이를 표현할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울프를 괴롭히는 문제이며, 『출항』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녀의 첫 실험이다. 이 작품에서는 레이첼의 환상과 악몽에서 체현되는 비현실의 언어로, 언어 이전 침묵의 소리로만 그런 경험의 재현이 가능하지만, 과연 우리는 레이첼의 죽음을 울프의 소설적 실험의 실패로만 한정지을 것인가? 사실상 울프는 자신의 여주인공의 죽음을 딛고서서 새로운 출항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레이첼이 바다 깊숙이 익사하는 순간 자신의 자아/주체가 와해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울프는 그 심연에서 떠오른다. 『출항』은 울프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이다.

(충주대)

## 인용문헌

- Apter, T. E. *Virginia Woolf: A Study of the Novels*. New York: N.Y. UP, 1979.
- Bell, Quentin. *Virginia Woolf: A Biography*. 2 Vols.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 Cummins, June. "Death and the Maiden Voyage." *Virginia Woolf: Texts and Contexts*. Ed. Beth Rigel Daugherty and Eileen Barrett. N.Y.: Pace UP, 1996. 204-10.
- DeSalvo, Louise A. *Virginia Woolf's First Voyage*.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0.
- \_\_\_\_\_. *Virginia Woolf: The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Her Life and Work*. Boston: Beacon, 1989.
- Low, Lisa. "'Listen and Save': Woolf's Allusion to *Comus* in Her Revolutionary First Novel." *Virginia Woolf: Reading the Renaissance*. Ed. Sally Greene. Athens: Ohio UP, 1999. 117-35.
- Lyon, George Ella. "Virginia Woolf and the Problem of the Body." *Virginia Woolf: Centennial Essays*. Ed. Elaine K. Ginsberg and Laura Moss Gottlieb. Troy, N.Y.: The Whitston Publishing Company, 1983. 111-25.
- Paul, Janis M. *The Victorian Heritage of Virginia Woolf*. Norman, Oklahoma: Pilgrim Books, 1987.
- Raitt, Suzanne. "Virginia Woolf's Early Novels: Finding a Voi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Virginia Woolf*. Ed. Susan Seller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2010. 29-48.
- Steele, Elizabeth. *Virginia Woolf's Literary Sources and Allusion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83.
- Woolf, Virginia. "On Being Ill." *The Moment and Other Essays*. New York: A Harvest Book, 1974. 9-23.
- \_\_\_\_\_. *The Voyage Out*. London: The Hogarth Press, 1975.
- Wussow, Helen. "War and Conflict in *The Voyage Out*." *Virginia Woolf and War*. Ed. Mark Hussey. N.Y.: Syracuse UP, 1991. 101-09.

## Abstract

### Moments of Being i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Myunghee Jin

Virginia Woolf's first novel, *The Voyage Out* (1915), is a kind of bildungsroman which depicts Rachel Vinrace's voyage into her soul; it is simultaneously the writer's launching into her professional career. Two excursions in the novel, one to the mountaintop, and the other along up the Amazon river, signify the exploration into the dark valleys, virgin forests and deep rivers of the human soul. Even though Woolf still borrows in this novel the narrative form of travelogues and the Victorian novel of manners culminating in a marriage, she is not interested in the plot development; rather her emphasis is on her heroine's mental agony and her groping in the dark to experience the happy moment of communion. Love or true communion is, the author implies, only possible momentarily, like a thunderbolt in the dark whitely flashing out a moment and blinding our eyes by its brilliance. The happy and short moments of being that break out the barriers of solipsism are some epiphanic moments which impose on the shoulders of the writer the burden of finding out the language and grammar of the yet undiscovered country of human experience, especially of women's experience. Hence one of the major concerns of the author in the novel is the problem of composing a true feminine experience in the still prevalent and powerful patriarchal language. Woolf's frequent revisions of the novel reflect her frustration at expressing women's repressed and silenced inner voice in a male language. Woolf experienced several mental breakdowns whenever she tried to rewrite her heroine's comatose semi-consciousness of the typhoid fever. Rachel's death before the 'happy' marriage of communion implies the half failure of the author in inventing a language of feminine experiences or 'silences'. The three questions of communion,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the novel



converge into the problem of the marriage of true minds and of finding out a woman's language to express it. *The Voyage Out* is Virginia Woolf's trial to burst out the traditional courtship and marriage novels, though she still borrows the ornamental garment of the traditional narrative form. Out of Rachel's wreckage of the inner voyage, however, Woolf surfaces up with some buoying fragments of a language that will make her in her later major novels capable of expressing "the semi-transparent envelope" of women's experience. Her first novel is a successful failure to interweave the moments of communion, community and communication in terms of her heroine's searching for the true identity and pathetic death.

■ **Key words** : moments of being, *The Voyage Out*, communication, communion, Virginia Woolf

(존재의 순간들, 『출항』, 소통, 영교, 버지니아 울프)

논문접수: 2011년 11월 5일

논문심사: 2011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1일